

석가모니와 그의 후계자[五]

철학박사 백성욱

七

그런즉 이것이 初年佛教의 始初이다. 그럼으려 佛教徒들은 그들의 敎主修 □期를 六年이라함은 前六年을 除한 後六年이다. 이새 『단독』 山中雪景은 峻嶺한 氣□를 보이고, 山川과 草木을 쓸쓸한 宇宙를 作한 中 오즉 一個의 太子는 □□한 形象에서 活氣를 發하게 되니 一個의 □□이 옛슴도 또한 奇觀이라 아니할 수 업다. 이 新宇宙를 研究한 三十□歲의 聖者の 아래는 그의 新宇宙觀이 神聖한 만큼 前途에 노인□□은 正比例이다. 六年의 苦行도 적다 할수 업지마는, 實로 아직 큰 苦痛은 그를 잡아 먹고서 늪설거린다. 그는 집에 들어가자면 이제 겨우 大門에 들어온 □이 업지 못하다. 그래 八相錄中 樹下降□相이라는 것은 □□ 그와 가튼 □가 잇섯다는 것보다 그의 内部的苦痛을 說明한 □□에 不過하다. 이와 가튼 意味에 잇서서 무밧둥 가튼 樹下降□相인즉 그의 傳記中 重要的 部分이라 아니할 수 업다. 이 難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, 實行方法이다. 聖者は 이것을 三 週間이나 다시 研究하였다. 이 三 週間이라는 短時間은 聖者和 印度 社會間의 接□이다. 아니다 聖者和 全人類間의 接近이라 아니할 수 업다. 이것이 實로 人類發達史上에 新紀元을作하는 瞬間이다!

이와 가튼 苦痛을 뒤로 보낸 聖者は 徐徐히 몸을 일으키며 서슴지 아니하고 『베나레쓰』로 五人의 □友를 訪問하니 그의 多情은 이것으로 짐작할 수 잇다. 그와 가튼 밥문 中에 默然中에서 作別하였슴에 不聞하고 어디로 가는 것을 記憶할 □□가 잇섯든 것이다.

五人의 互對接이야 形言할 수 업는 中, 聖者の 親切과 □□은 結局 그들을 □化하였으니, 이것이 初年佛教의 三寶라는 것이다. 卽 佛教(敎主), 法寶(四□法, □僧寶(敎團五人)이니 이것이 佛教寺院에서 자조 들을수 잇는 歸依佛, 歸依法, 歸依僧(부담, 사라남, 가최미, 담맘 사라남 가최미, 상감 사라남 가최미)이니, 이것이 마치 天主教에서 자조 들을 수 잇는 聖神, 聖父, 聖子, 아멘,

(Sanctus Spiretus. Pater Notrum, Fifius Sanctus Amen!)부르는 것과 相以하다.

그 後에 全印度 各地에서 만흔 學者들을 訪問하였나니 그들은 全部가 그의 激烈한 反對者였으나 結局은 門人이 되었나니, 이들 中 有名한 學者인즉 『브라흐만』學派中 當時 印度精神 界에 □□인 『마하가시압과』와 『사리푸트다』第十□人이나 이들의 聖者에 對한 信仰인즉 『나사렐』에서난 『예수쓰크리쓰트쓰』(Jesus Cristus)에 對한 『페트루쓰』(Petrus)와 相以하였나니라. 이들은 各各門徒를 가지었는지라 不過□旬之間에 一千二百五十人이라는 集團은太子를 通하여 『좌기야문이』(『좌기야』는 性이요. 『문이』는 聖人, 修行者, 敎世主)이라 하더라.

八

印度社會는 十二年前에 少□한 太子를 일어 바린 代로 十二年後에 다시 그들의 救世主를 맞게되었다. 아니 차라리 全人類의 敎世主 全宇宙에 □한 大思想家를 맞게 되었다. 오래 동안 暗默하였던 大地는 光明을 어땀다 그래 이와 가튼 人物 中心한 初年 佛教團은 모든 □□을 지내는 中 □□에서 大□□으로 救世主를 보내게 되니, 當時學者的 □□로는 第一位□占하는 中 性質이 全社會□□□ 하였는지라, 그 □가 날로 增加하는 反面에서는 當時政治□□들은 全印度에서 兵役者를 求할 수 업게되었는지라, 마는 苦□과 迫害로 聖者를 對하였던것도 또한 事實이었다.